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호 [루계 제2578호]

주제 109
(2020)년 1월
25일
토요일
음력 1월 1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자주적령도의 귀감을 창조하신 희세의 정치가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강령의 신령과 의지, 비범한 령도력으로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특출한 정치실력은 세인의 찬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위인상을 격찬하면서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조선은 사회주의강국으로 더욱 빛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에 집트자유사회주의 자당 부위원장인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 각 하께서는 자주적령도의 귀감을 창조하시였다.

세계는 김정은 각하의 령도밑에 주체의 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길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위대한 성과들을 경탄속에 바라보고있다.

조선인민이 달성한 모든 승리는 자력에 의거하여 국가발전을 힘있게 전진시켜오신 김정은 각하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슬로벤스프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세계 진보력량을 말할하려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우심해지고있는 현 국제정세는 김정은동지의 로선과 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도 조선인민은 세인을 놀라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격찬하였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은 사회주의승리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하였다.

김정은각하를 모시어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하고있다.

김정은 각하께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계승해나가시는데 대하여 세상사람들은 높이 칭송하고있다.

앞으로도 조선인민은 김정은각하의 절출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하신 소식은 행성을 들뜨게하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중국, 로씨야, 쿠바, 몽골, 인디아, 이란, 네팔, 배네수엘라의 통신, 신문, 방송, TV방송을 비롯한 광범한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보디에서 조선에 있어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이 절실히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번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는 없다고 하시였다.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자국의 경제부흥을 총괄하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매진할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정면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면 강력한 정치의교적, 군사적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 쿠바의 브레타 라파나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가 평양에서 소집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공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생산을 높이며 과학,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고 전원회의의 소식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각국 언론들의 광범한 보도와 함께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들과 개별적인 사람들의 반향도 컸다.

마자르로딩당은 성명에서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국내외

행성을 진감하는 조선의 소식

세계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조선의 발전을 위한 진지하고도 현실적인 내용의 보고를 하시였다. 온갖 도전과 난관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려는 조선로동당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하였다.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은 성명에서 《우리는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조선인민이 자력부강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리라고 확신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여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를 지지하는 성명들이 발표되었다.

여러 나라의 개별적인 사람들도 이번 전원회의의 소식을 접한 자들의 심정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로씨야 연대시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원회의보고에서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천명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부딪히는 난관들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한편 메히코와 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에 대한 동보모임, 독보회가 진행되었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12월전원회의의 소식은 자주와 정의의 기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세계적판도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공화국 각지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결기대회와 모임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기대회가 5일 평양에서 진행되는데 이어 강원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남포시를 비롯하여 각 도와 시들에서 련이어 진행되었다.

결기대회가 21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5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정책관철의 최후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부대의 용용한 기상을 과시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자랑찬 승전포성을 우렁차게 울려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시대 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계에 똑똑히 보여줄 철의 의지를 과격하였다.

이러 결의행진이 있었다.

혁명이며 전투적인 구호와 글발들이 쏘여진 프랑카드, 손구호들을 들고 《우리의 전진을 저에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우리 당의 영광을 위하여 투쟁을 계속해나갈것이다!》 등의 구호에 우렁차게 화답하며 거리를 누비나가는 행진대오마다에는 조선로동당의 최후대,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빛내일 열렬적충진의 혁명적열정과 기백이 융숭유졌다.

《조선청년행진곡》, 《사



이러 결의행진이 있었다.

혁명이며 전투적인 구호와 글발들이 쏘여진 프랑카드, 손구호들을 들고 《우리의 전진을 저에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우리 당의 영광을 위하여 투쟁을 계속해나갈것이다!》 등의 구호에 우렁차게 화답하며 거리를 누비나가는 행진대오마다에는 조선로동당의 최후대,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빛내일 열렬적충진의 혁명적열정과 기백이 융숭유졌다.

《조선청년행진곡》, 《사

파하고 뜻깊은 올해의 정면돌파전에서 자력부강의 승전포성을 더욱 힘차게 울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 준공식 진행

얼마전 풍치수려한 모란봉기슭에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이 개건되어 준공하였다.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은 수도시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위하여 온갖 사랑을 다 들려주신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령도자께서 뜨겁게 깃들여있는 사상문화교양기지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모란봉기슭에 몸소 야외극장터전도 잡아주시고 친히 이름까지 명명해주시였으며 여러차례 극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극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많은 유감사항과 문화오락기재들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어려웠던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을 더욱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니 계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며 정력적으로 이 끌어주시였다.

1만여석의 관람석과 소조실 등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음향 및 조명설비들을 갖춘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이 사상문화교양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졌으므로써 수도시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위하여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일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공화국이 발전하고 번영하는 령도에서는 그 전진을 저에하는 객관적요인이 작용하고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억척하고 고립압박하려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경제압박들은 집요하고 악랄하며 이것은 공화국의 전진을 저에하는 주요한 객관적요인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이 객관적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순응하는가, 아니면 객관적요인을 지배하는가에 따라 제국주의의 노예로 사는가 아니면 자주적인민들의 삶을 개척해나가는가 판가리된다고 볼수 있다.

지금 세계를 둘러보면 제국주의의 침략과 점령에 의하여 국가의 존엄을 잃고 인민이 불행과 고통을 겪는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 나라들은 그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해도 큰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큰 나라가 승인을 안해주면 아무리 자국에 절실한 리해관계가 있는 일도 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더우기 경제도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여 세계적인 경제파동이 일어나면 나라의 경제기반이 통째로 흔들리우고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꺼져버리는 초분처럼 객관적조건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은 메의없이 생명과도 같은 국가의 존엄을 짓밟히지 않을수 없다.

제반 사실들이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그 어느 국가이

몇해전 함경북도 북부지역의 두만강연안에는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져 여러 시, 군에서 막대한 자연재해를 입게 되었다.

지난날들에도 그러했지만 공화국은 절세위인을 대를 이어 모시어 오늘도 조성된 정세와 객관적요인들을 자기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동적으로 지배해나가고있다.

자주적신념으로 전진하는 나라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에 대한 제재책동에 악랄하게 매여달리는것은 공화국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고 완전히 질식시켜 압살하려는데 그 비렬한 목적이 있다.

남들 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앉고말았을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조건과 환경이지만 공화국은 객관적인 불리한 조건에 순응하는 길이 아니라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국가의 힘을 끊임없이 비축하면서 승리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고있다.

자리를 잃고 한지에 나앉게 되었다.

공화국에서는 조성된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국가의 인적, 물질, 기술적잠재력을 피해부추전투에 총동원, 총집중할데 대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불과 50여일만에 인민들이 원래 살던 집보다 더 훌륭한 1만 1 900여세대의 살림집들과 수십개의 새 거리, 새 마을을 형성하였다.

지난해에 조선반도를 휩쓸었던 태풍을 비롯하여 불리한 기상기후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농사에서 최고수확년



◆ 무슨 일에서나 땀과 노력을 들여야 좋은 결실을 거두는 태풍 13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농작물들이 넘어지거나 침수 및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봄철과 여름철에 가물현상도 나타났고 고온에 의한 피해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불리한 속에서도 이 땅의 농업근로자들은 농사를

◆ 지난해에도 공화국에서는 농사에 불리한 조건과 날씨가 계속되었다. ◆ 모두가 쌀로써 나라를 만들었다

◆ 무슨 일에서나 땀과 노력을 들여야 좋은 결실을 거두는 태풍 13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농작물들이 넘어지거나 침수 및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봄철과 여름철에 가물현상도 나타났고 고온에 의한 피해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불리한 속에서도 이 땅의 농업근로자들은 농사를

이러는 각각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객관적요인을 지배하고 놀라운 소출을 낸것이다.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390여개의 농작물과 4 000여개의 작업, 1만 5 500여개의 분조가 다수확단위대에 들어서고 그 전해보다 4만여명이나 더 늘어난 10만 2 900여명의 다수확농장원이 배출되었지만 보이도 협동농장들과 농장원들이 얼마나 빠짐을 들어 농사를 잘 지었는가를 보여준다.

◆ 얼마전 온 나라의 관심속에 평양에서 진행된 2019년 농업부총화회의는 정면돌파전의 첫해인 올해에 더 큰 알곡수확고를 내게 하는 데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회의에서 많은 토론자들이 들려준 최약의 조건속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한 다수확협동농장 참가자들에게 깊은 어운을 안겨주었다. 지금 농업근로자들의 최대목표는 양양원 열의의 최대 수확고를 내다 보게 해준다.

본사기자 고성호